

삼천리강토의 천만산악을 품에 안고 오랜 세월 역사의 온갖 풍파를 다 맛고 보내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은 삼천리를 굽어본다

자주의 넘과 기상 넘치는 조종의 산
지금 이 땅 그 어디나 단풍은 잎새들이 마가울의 풍치를 돌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려면, 민족적광심이 있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려면 백두의 자주기상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살아야 한다.

것은 (구우일모)에 불라하다. 라는 글을 남겼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얼마나 숭상했는가 하는 것은 장군봉밀의 천지기승 바위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대태백 대택수 풍신비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겨레의 넘과 지향이 응축되어있는 민족의 성산이다. 무장으로 강도 일제에 맞서싸워 나라의 독립을 끝끝내 이룩한 영웅적인 투쟁정신이 질계 숨배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안아와야 한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해준다. 하기에 불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누구나 백두산에 오르면 이구동성으로 터치고터 친것 아니겠는가.

남에서 살건 바다멀리 해외에서 살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찌릿하게 느끼는 진실한 감정이다. 그래서인가. 강토의 허리에 아직 분계선이 가로놓여있어도 북한의 겨레를 민족의식으로 일깨워주어 하나로 합치게 해주는 백두산의 천지물이고 백두산의 천만산악이다.

백두의 그 칼바람을 한몸에 맞더라도 누구나 눈앞에 떠올리는 태양의 존안이 있다. 통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삼천리강토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

절세 위인의 명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밝혀주고 있는 통일위업실현의 고귀한 지침이다.

오늘도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모해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수치스러운 매국배주정위이다.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길에서 백두산은 언제나 우리 겨레에게 자주의 의역 신념을 안겨주는 성스러운 피우리로 빛을 뿌려왔다.

통일의 길은 결코 단란 대로가 아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과 만만시련을 뚫고 헤쳐나가야 하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통일운동의 길에 이를을 남긴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인사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던 심심은 넘치고 새 힘이 솟아올랐다. 통일에 사는 사람들, 통일대업에 떨쳐나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굴함없는 의지를 북돋아 준다.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사업에 더욱 분발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교육상 (3)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남운 선생에게 들려주신 사랑과 믿음을 결코 잊었다.

어머님 수령님께서 백남운 선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살피셨고, 그 결과 백남운 선생은 8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께서 그가 사망한 후에도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사람이 되시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백남운선생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주시고 사연깊은 속셈에 통일전선당을 세우실 때에는 력사적인 4월남북협력회의의 날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이름도 비문에 새겨주시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었다.

영웅적위업》을 써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어 높은 국가수훈과 사랑의 선물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사회과학원에 백남운선생을 위한 부인장의 직제를 새로 내오게 하시니 말년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과학적술활동을 하도록 배려해주셨다.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안고
해마다 전 기관적, 전 동포적으로 불리는 총련의 《사랑의 모금운동》이 일본각지에서 진행되고있다.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사업에 더욱 분발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백남운선생
최고인민회의의 위장
1897년 3월 19일생
1979년 6월 12일사서

이렇게 어머니수령님의 품속에서 백남운선생은 사소한 우여곡절도 모르고 애국의 한결만을 꽃같이 피어왔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께서 그가 사망한 후에도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사람이 되시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백남운선생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주시고 사연깊은 속셈에 통일전선당을 세우실 때에는 력사적인 4월남북협력회의의 날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이름도 비문에 새겨주시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었다.

최근 공화국이 내놓은 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중대선결과제를 회피하며 여론을 오도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가 겨레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오그랑수만 쓴다
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속에서 동포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남조선당국이 북한관계에 얽힌 중한 해약을 끼치는 행태를 강행하면서도 외부에 나가서는 변변스럽게 《평화》를 떠들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고있는것이다.

백두의 그 칼바람을 한몸에 맞더라도 누구나 눈앞에 떠올리는 태양의 존안이 있다. 통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삼천리강토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

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속에서 동포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올해 《사랑의 모금운동》은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모금사업을 총련지부, 분회단위에서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COVID-19》감염증으로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과 료양자, 환자들의 감염예방편을

동포의 정우가는 애국애족의 집단이라

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속에서 동포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올해 《사랑의 모금운동》은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모금사업을 총련지부, 분회단위에서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COVID-19》감염증으로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과 료양자, 환자들의 감염예방편을



총련분회 동포회관에서 진행된 사랑의 모금운동 회의 모습이다.

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속에서 동포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올해 《사랑의 모금운동》은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모금사업을 총련지부, 분회단위에서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COVID-19》감염증으로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과 료양자, 환자들의 감염예방편을

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속에서 동포들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올해 《사랑의 모금운동》은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요구에 맞게 모금사업을 총련지부, 분회단위에서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COVID-19》감염증으로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과 료양자, 환자들의 감염예방편을